

이 사람 - '걸어다니는 미술사전' 김달진 김달진박물관장

“미술자료 수집 45년...활용이 문제”

“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미술자료 수집이 벌써 45년이 되었네요. 이제 남은 것은 활용을 잘 하는 일인데 그게 걱정입니다.”

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(60) 관장은 최근 종로구 홍지동에 진짜 김달진박물관을 세웠다. 그동안 전·월세 사옥을 전전하며 우여곡절을 겪다 어렵사리 마련한 새 둥지다. 털어놓은 사재보다 은행 융자가 더 많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.

김 관장은 '걸어다니는 미술사전'으로 통한다. 미술계에 의미있는 전시가 열리는 자리마다 어김없이 어깨에 천가방을 메고 등장하는 인사로도 유명하다. 수십년간 한 쪽으로 메고 다닌 가방 탓인지 4년 전엔 척



반세기 미술현장자료 디지털화 부진

“다수위해 쓰이도록 함께 힘모았으면”

주 종양으로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기도 했다. “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. 행복했었다고요.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. 웬지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.”

그가 큰 병을 얻어 삶의 기로에 섰던 것은 비단 천가방 때문만은 아니었다.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일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수십년간 그의 척추를 눌러왔다. “나는 미술분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쳤지만 이 분야가 갖는 포지션이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합니다. 그래서 기업들의 메세나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. 정부 지원으로도 이 일을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죠.”

김 관장은 수익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. 쌓아온 자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박물관 운영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지금 재원으로는 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실정이다. 메이저 갤러리에서 들어오던 광고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.

그가 쌓아온 미술자료는 말 그대로 '빅데이터'다. 반세기 미술 현장의 데이터가 그의 자료실에 있다. '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(2010)'을 펴기까지는 27년의 세월이 걸렸다. 활발하게 활동했던 창작 미술인들

뿐만 아니라 미술사가, 큐레이터, 작품보증 전문가 등 비(非)창작 미술인들까지 5000여명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다. 신문 기사에 이름 한 줄 못 올렸던 미술가들의 생몰연대까지 기록돼 있다.

‘돈이 안 된다’는 이유로 정부도 등한시한 일을 한 개인이 그저 ‘좋아서’ 해 왔다. 그런데 잘 안 팔린다. 딱딱하고 재미없기 때문이다. 게다가 이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. 먼지만 쌓인 채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.

“누가 이 일을 이어갈 것인지가 걱정입니다.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지루해하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죠.”

다행히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나섰다. 예술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박물관 '허드렛일'을 도맡아 하고 있다. 짐을 되물림한 것 같아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이다. “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는 사회,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리는 사회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잖아요. 단지 자기만족만을 위한 일 말고 다수를 위해 쓰임이 있는 일에 사람들이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”

김아미 기자/amigo@heraldcorp.com

사진=박해묵 기자/mook@heraldcorp.com